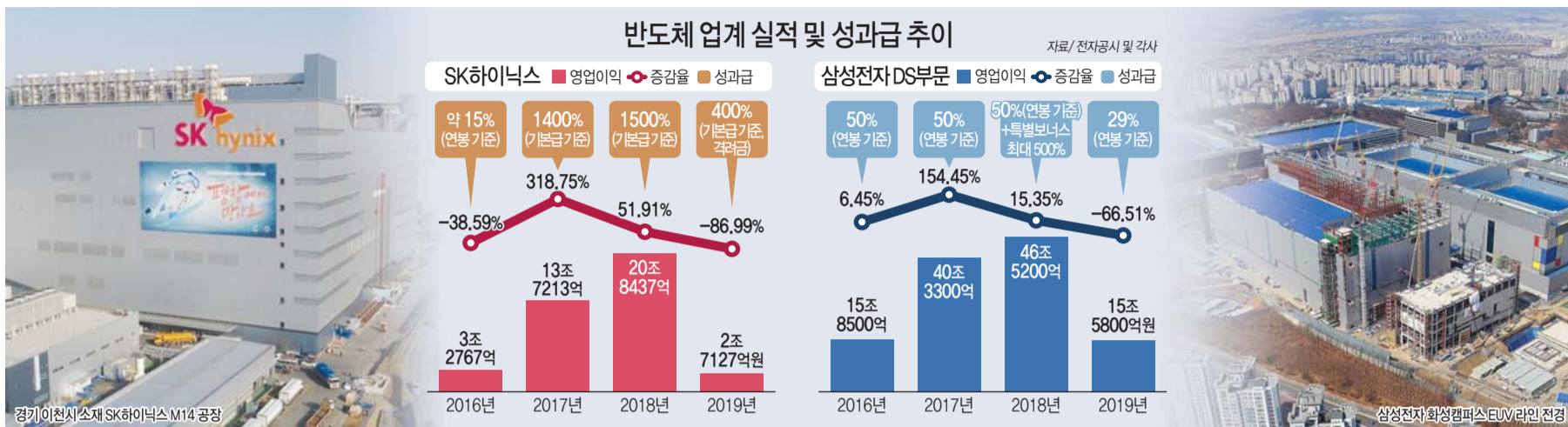


반도체업계 성과급 축소에 직원 울상... “성장동력이 우선”

삼성전자 작년 대비 ‘반토막’
SK하이닉스 성과급 없애고
‘미래성장 특별기여금’으로 대체
성과급 없애려는 수순 불멘소리
종사자 “순이익 여전히 수조원대
실적따라 성과급 오락가락” 주장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저조한 실적에도 ‘보너스’ 지급을 완료했지만, 직원들 간 불만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을 공지했다. SK하이닉스도 초과이익성과급(P S) 대신 ‘미래성장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액은 삼성전자 DS부문이 연봉의 29%, SK하이닉스가 월 기본급의 400%다. 전년에 삼성전자가 50%에 추가금, SK하이닉스가 1500%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적은 수준이다.

이유는 실적 악화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DS 부문은 지난해 15조 5800억원으로 전년(46조 5200억원)보다 66.51%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2조 7127억원으로 전년(20조 8438억원)보다 86.99%나 급락했다.

그럼에도 직원들 불만은 적지 않다. 실

적이 좋을 때는 그만큼 성과급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실적이 떨어지면 이에 준해 성과급도 떨어뜨린다는 주장 때문.

그나마 삼성전자가 올해를 제외하고는 수년간 최대치인 연봉 50%를 지급해왔던 반면,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따라 지급액을 크게 바꾸면서 불만 목소리도 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실적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연봉의 50%, 2016년에는 연봉의 15%를 줬다가, 2017년에는 월 기본급의 1400%, 2018년에는 1500%를 지급했다. 특히 올해에는 성과급 대신 ‘미래성장을 위한 특별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결정하며, 추후 성과급을 없애려는 수순이냐는 우려도 낳았다.

한 종사자는 “실적이 좋다고 그만큼 성과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실적이 나쁘다고 성과급을 없앤다는 건 모순”이라며 “여전히 수조원대 순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성과급도 충분히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노조 활동이 힘을 얻게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매년 성과급과 관련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삼성이 최근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단, 노조가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주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성과급은 사측에서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노사가 논의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노조측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실제 성과급 지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경계했다.

성과급 지급 수준이 실적 추이를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2016년에 -38.59%, 2017년에 318.75%, 2018년에 51.91%, 2019년에 -86.99%를 기록했다.

그동안 성과급은 같은 기간 연봉 기준 10% 중반에서 기본급 기준 1400%, 1500%, 400%로, 증감률은 약 -30%, 약 700%, 7.14%, -73.3%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실적보다 감소폭이 적고, 2017년에는 실적보다 더 크게 증가한 셈이다. 2018년에만 실적과 비교해 성과급이 크게 줄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DS부문에서 2016년부터 6.44%, 154.44%, 15.35% 영업이익 성장을 보이는 동안에도 성과급 최대치인 50%를 유지했다. 2018년에만 특별 보너스로 기본급의 최대 500%가 지급됐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이익을 인력 충원과 연구개발 확대, 사세 확장 등에 사용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눌 필요도 있지만, 늘어난 이익을 모두 배분한다면 결국 성장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조달청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중소기업중앙회는 광고물 및 인쇄물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2월부터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란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수주·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견적 경쟁만으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어 업무효

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급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됐다.

품목은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라벨용지, 포스터, 간판, 조형물 등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인쇄 및 광고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견적 경쟁만으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어 업무효

/김승호 기자 bada@

네이버웹툰 웹드라마 ‘또한번 엔딩’ 웹툰으로 공개

현실 연애와 결혼 이야기로 화제가 됐던 청춘 웹드라마 ‘엔딩’ 시리즈의 최신편 ‘또한번 엔딩’을 웹툰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웹툰은 플레어리스트의 2020년 신작 ‘또한번 엔딩’을 바탕으로 하는 웹툰을 2일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런 꽃 같은 엔딩’, ‘최고의 엔딩’에서 ‘또한번 엔딩’으로 이어지는 엔딩 시리즈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젊은이들의 고민을 사실감 있게 풀어낸 플레어리스트의 대표작이다. 이번 ‘또한번 엔딩’은 ‘과연 연애의 최고의 결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묻고 답하는 청춘들의 이

야기를 다룬다. 8년의연애가 허무하게 끝나 마음의 상처를 얻고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추구하는 인영(조수민 분)과 그런 인영에게 다가온 새로운 남자 운수(김권원 분) 그리고 다시 인영의 앞에 나타난 옛 연인 찬희(강희 분). 세 사람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신규 LCC 3사, 잇단 변수에도 ‘날갯짓’

- 플라이강원 연내 항공기 5대 도입
- 20일 국제선 ‘양양-타이중’ 취항
- 에어로케이 3월 취항준비 순조
- 8월까지 항공기 3대 들어올 듯
- 에어프레미아 당월 운항증명 신청
- 9월 동남아, 내년 LA 등 취항 계획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 운송면허를 발급받았던 LCC 3사가 올해 본격 비상(飛上)에 나선다.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돌발변수를 만났지만 신규 항공사의 날갯짓은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플라이강원을 필두로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 항공사 3사가 연내 모두 첫 취항을 마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이미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으로 발 넓히기에 나섰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도 항공기 도입 및 노선 계획을 세우며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오는 20일 3번째 국제선으로 ‘양양-타이중’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2월 2호기 도입으로 첫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에 취항한 뒤, 필리핀 클락으로 지역을 넓혔다. 아울러 운수권 확보·새 항공기 도입 등을 해 하반기 중국 내 다수 지역 취항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선에 투입될 4호기는 6월에 들어올 전망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항공기 3대 보



유·이착륙 요건 등 하반기 중국 노선에 취항하기 위한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 양양에서 상해·베이징 등 중국 노선의 운수권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해외 운항 허가도 3개월이 소요돼 중국 쪽에 미리 신청했다. 연내 항공기 5대 도입이 확정적인데 4호기는 6월, 5호기는 9월에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도 오는 3월 청주-제주 노선의 첫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해당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후 부여하는 공식 증명서다.

또한 지난달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예약·발권을 위한 ‘투 레터 코드’를 RF로 배정받기도 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13일 에어버스사의 A320 항공기를 1호기로 도입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일단 2월 13일에 1호기가 들어오고 그 뒤 7월과 8월에 각각 2, 3호기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항공기의 기종은 A320으로 동일하다. 현재로서는 3월에 청주-제주 노선 취항이 목표”라고 밝혔다.

후발주자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초 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운항증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에어프레미아는 보잉사의 787-9 기종을 7월에 첫 도입하고, 9월 동남아 등 지역을 대상으로 첫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실리콘밸리 등에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올해 첫 취항 시점은 9월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 동남아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부터 먼저 갈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올해는 항공기가 7월과 9월, 11월에 도입한 787-9 기종으로 각각 대략 총 3대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